

### 오피니언 리더



방충현  
광주동명교회 원로장로

이번 중동전쟁은 오직 한쪽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란이 핵폭탄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물질을 농축하기 시작한 일은 1980년대 초반부터 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확인된 시점은 2000년대 초반이다.

이란의 핵물질 활동은 2002년 비밀 농축 시설 공개 후이며 2015년 이란 핵 합의 체결로 농축 수준 제한을 결의 원심분리기 대

우선 역사적으로 기독교 관점에서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이 먼 훗날 고토로 돌아와 마른 뼈가 살아나서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한 국가가 되어 있을 때 그 나라를 공격하여 탈취하려는 전쟁이 예언 되어 있고, 신약의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이것과 같은 전쟁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마귀 땅에 있는 곡에게 이 전쟁의 지휘권을 주며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에 이란도 함께 하고 있다.

만약 이 전쟁이 발발하면 이란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 버리겠다고 공언하는 나라로서 핵폭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영원히 시암이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지구촌은 전무후무한 핵전쟁으로 지구는 파멸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계시록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의 나팔로 두 번째 화가 시작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를 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

폭 축소 핵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 허용 등을 합의 하였다.

그런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 시켰고, 대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 하였으며 핵 합의 탈퇴 직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하였다.

석유수출 금융거래 외환 접근 등을 차단하여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이것은 이란을 더 강력한 조건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지하 깊숙한 곳에 설치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여 60%의 440kg의 우라늄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95%의 우라늄으로 농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거기까지 가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란이 핵폭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간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스라엘을 불법국가로 규정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지원, 시리아 내 군사 거점 유지 등으로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하여 저들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이 핵폭탄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욱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리라(계 9:14-18)."

하루아침에 인류의 1/3이 일시에 죽은 전쟁은 핵전쟁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인류의 최후의 전쟁은 핵전쟁이다. 이번 전쟁이 그 서막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인류가 다 같이 핵을 폐기해 버리면 어떨까?

핵폭탄을 해체하여 인류의 멸망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지도자들이 추진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인류는 안전한가? 그렇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시기전 재림하시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인류가 원시시대로 돌아간다면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7년째에 수많은 소행성들로 일시에 지구와 충돌하여 인류와 생물들이 소멸되는 데 멸종이 되며 최후의 심판이 있고, 지구는 RESET 될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칼럼 무즙 파동 그리고 <엿> 먹어라 사건이 대한민국을 흔든다!

조청(漕淸)은 인공적인 꿀로, 곡식으로 만든 전통적인 천연 감미료이다. 조청은 보리나 쌀에 붙어있는 녹말로부터 '발아시킨 보리'인 맥아(麥芽; 엿기름)의 아밀라아제 효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찌거나 삶은 곡물에 엿기름물을 섞고 따뜻하게 하면 식혜가 만들어진다. 식혜를 끓여 적당한 점성의 조청을 만들고, 더 끓여서 굳히면 엿이 된다. 그래서, 식혜와 조청과 엿은 같은 뿌리를 가진 한가죽이다. 조청이 설탕보다 덜 달고 전통적인 감미식품이라 건강식품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조청은 설탕보다 당지수가 더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에 당뇨병자나 비만 위험자는 피해야 한다.

<자연과목> 엿기름으로 녹말을 당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엿기름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

① 디아스타제 ② 꿀 ③ 녹말 ④ 무즙

명문 중학교로 진학하려는 입시가 치열했던 1964년 12월, 서울시 중학교 입학고사에서 위 문제가 자연과목 시험문제중 하나로 출제되었다. 엿을 만드는 과정 중, 무엇이 당화(糖化)작용을 하는지 묻는 문제였다. 당시 시험정답이 ①디아스타제로 발표되자, 학부모들로부터 ④무즙도 정답이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실제 무즙 성분이 디아스타제(diastase)가 들어 있어 엿을 만들 수 있어서였다. 당시 국민학교 6학년 자연 교과서에서도 "질 뿐만 아니라 무즙에도 아밀라아제의 유형으로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 있다"라고 실려 있었다. 명문 중학교를 목표로 하는 입시에서 1점으로도 합격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학부모들의 항의는 당연하였다.

다당류를 당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순수한 성분을 고르라는 것이 문제출제 의도였는데 (당화시키는 재료가 아닌), 문제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문제무효로 발표했다가, 나중에는 정답을 ①디아스타제로만 합격 처리하였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직접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서울

시에 가서 <엿> 먹어라하며 출단지 채로 들며 항의하였다. 당시 경기중학교에 응시했다가 0.6점 차이로 낙방한 학생이 경기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 사건은 1965년 '입학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재판까지 이어져 결국 ①④ 두 개 정답이 인정되고 교육관계자들이 사표를 내는 큰 난리를 빚으면서 마무리되었다.

무즙 파동사건 때문에, 1968년 입시지옥인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고 무시험 입학제도가 발표된다. 당시 7월15일 발표는 일제에서 해방된 815처럼, 입시지옥에서 해방되는 상징적인 날짜로 정했다고 한다. 엿에 관련된 시험문제와 무즙 파동이 여러 학생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 나라의 교육제도까지 바뀌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불합격되었다가 이 사건판결로 구제받아 경기·서울·경북중 등 이른바 명문중학교에 뛰듯 입학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이 무즙 사건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인생이 더 잘되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인간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이기에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전 7:14).



이원재 교수

- 서울대의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 신교칼럼 97



장찬익 신교사  
이일대선교회 대표  
광주중명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교의 몰락과

2026년 2월 28일 오전 6시 아침의 적막감을 깨고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인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정치의 흐름과 이란정부와 민심의 흐름과 기독교의 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이란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의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

이러한 정황전과 호무즈 해협봉쇄와 하그그 섬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이유와 목적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중동의 평화를 위해 이란의 우라늄과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2. 공산권 나라에 원유를 제공하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인 석유와 가스공급을 관리하였다. 3. 이란의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4. 작년 11월에 인권과 자유를 외치는 국민들 중에 32,000명을 이란의 독재정권이 거리시위 중에 무참히 총살하고 폭력으로 죽였는데 이번 기회에 이란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전과 호무즈 해협봉쇄와 하그그 섬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정변을 뛰어 넘고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단기간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란정부와 민심의 흐름

이란정부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장관 47명이 지하 6층 벙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 그런데 이스라엘의 폭탄투하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혁명수비대는 그들을 개발하여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날려 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왔고 2001년 9월 11일에는 오사마 빈 라덴은 무슬림 폭군대를 조직하여 여객기 5대를 납치한 후 미국의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란의 슬람혁명수비대가 2025년 11월에 인권과 자유를 외치러 거리로 나온 이란의 국민들을 향하여 무참히 총격을 가하여 32,000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란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첫 날에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장관 47명 모두가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거리로 나와서 폭죽을 터트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란국민들은 1979년 이란의 종교혁명 이후로 이슬람이 외치는 신정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경제적인 굶주림과 선거의 부정부패와 고위층의 부조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모집 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 원서접수 : 수시접수(062-266-0153)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신학부 :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신학연구원 :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http://gsccc.or.kr>)

- 주야간반 : 매주 월/화 (주간:오전10시, 야간:오후6시) 주말반 : 매주 토요일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 부부학생특혜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전문목회자 양성
- 교회 개척,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총회신학

↑ 보수신학시장

← 동광주IC

← 문흥지구

● 신안은행

● 아주병원

● 홈플러스

↑ 남수신학시장

↑ 강화동 금호APT

토요반 수시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신학교육기관입니다.